

전통 마을 공동체 신앙의 공간적 해석*

- 전통 문화마을 장흥군 방촌을 사례로 -

박의준** · 이정록*** · 천득염****

Spatial Analysis of Communal Folk Belief in Traditional Village*

- A Case Study on Bangchon Traditional Village -

Eui-Joon Park*, Jeong-Rock Lee*** and Deuk-Youm Cheon****

요약 : 인간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와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독특한 신앙체계는 인간이 특정 지역을 점유하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발현된 하나의 공간적 행태라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신앙의 하나인 공동체 신앙은 마을이라는 공간을 점유하고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전통 사회 마을 구성원의 공간인식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통마을에 나타나는 공동체 신앙의 특성을 공간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지역으로는 전통문화마을로 지정된 전라남도 장흥군 방촌마을을 사례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지역인 방촌마을은 내동, 계춘, 탐동, 호동, 호산, 산저, 신기의 7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마을의 입지과정은 고려시대 이후 시공간적으로 차별성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 둘째, 방촌마을의 공동체 신앙은 크게 6개의 입석과 돌장승, 별신제터와 허제비골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방촌마을 공동체 신앙은 크게 마을과 마을의 경계 표시, 마을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는 기능, 마을의 중심공간 표시, 마을의 입구와 외곽 경계 표시라는 공간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마을에 나타나는 공동체 신앙은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신앙과 상징이라는 의미 이외에, 과거 전통사회 자연마을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게 해주는 지시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전통마을, 공동체 신앙, 입석, 별신제, 공간인식

Abstract : The community and communal folk belief are developed as spatial phenomena. So the communal folk belief express the spatial perception of inhabitants in traditional village. This study analyz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communal folk belief in traditional village. The study area is Bangchon village which consists of seven hamlets in Changhung-gun, Chollanam-do. The result are as follows. First, the seven hamlet's location process in Bangchon village has been developed with spatio-temporal variations since Korea dynasty. Second, the communal folk belief in study area can be classified as Ipsok, Byolsinje's site, Hojeby's site. Thir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communal folk belief in study area are indication of each hamlet's boundary, indication of entrance and exit of Bangchon village, indication of central space of Bangchon village in traditional period. Consequently, the spatial distribution of communal folk belief are important indicator about spatial structure and spatial perception in traditional village's society.

Key Words : Traditional Village. Hamlet. Communal Folk Belief. Ipsok. Byolsinje, Spatial Perception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fund in 2000: KRF-2000-005-y-278)

**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연구교수(Research Professor, Honam Culture Research Cente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Professor, Faculty of Architec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1) 연구목적 및 방법

인간은 농경사회 이래 집단생활을 영위해왔으며, 이러한 집단생활은 지역공동체(regional community)라는 공간적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인간은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독특한 신앙체계를 발전시켜 왔다(최길성, 1989). 따라서 공동체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독특한 신앙체계는 인간이 특정 지역을 점유하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발현된 하나의 공간적 형태라고 정리할 수 있다(남도민속학회, 1998).

우리가 흔히 민간신앙이라고 칭하는 것은 다른 용어로 '민속신앙'이라고도 하는데, 글자 그대로 민간사회에서 내재적으로 발생하고 말과 행위를 매개로 전승되는 종교를 의미한다(민속학회, 1994). 특히 유교적 전통의 뿌리가 깊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 민간신앙은 제도적인 신앙체계가 주를 이루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흔적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신앙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문화사회의 도처에 존재하는 생활양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신앙을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무대인 지역과 연관지어 공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단 학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문화의 발굴과 전통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마을에 나타나는 민간신앙의 특성을 공간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전통마을에 나타나는 공동체 신앙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취락의 한 형태로서 마을이 갖는 의미와 공동체 신앙과의 관계를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둘째, 연구지역인 방촌마을의 공동체 신앙의 특징과 공간적 분포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방촌마을의 현지조사 및 고문헌 분석을 통하여 전통 문화마을로 지정된 방촌마을의 형성과정을 정리하고, 현지측량과 지리정보기법(GIS) 분석을 통하여 공동체 신앙의 위치 및 분포를 파악하였다. 셋째, 방촌마을의 공동체 신

앙이 갖는 공간적인 의미를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고찰한 마을의 형성과정과 공동체 신앙의 공간적 분포, 시기별 지형도를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가 연구지역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2) 연구지역

연구지역으로 설정된 방촌마을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에 위치한 7개의 마을이 중심이 된 전통취락이다. 연구지역인 방촌마을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장흥부 읍치소가 위치해 있던 장흥군의 중심지였으며, 장흥 위씨의 집성촌으로 더 잘 알려진 곳이다(冠山邑誌, 1789). 지형적으로는 남서쪽에 장흥의 명산인 천관산이 위치해 있고, 남동쪽으로는 보성만을 경계로 고흥군과 인접하여 있다(그림 1). 전체적인 지세는 천관산에서 발원한 해발고도 350~400m의 산지로 동·서·북이 폐쇄되어 있고 중앙부에 나지막한 구릉지와 평야가 발달해 있는 전형적인 산간분지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방촌마을은 1993년에 당시 문화체육부(이하 문화부)가 시범문화마을로 지정한 마을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시범문화마을은 문화부가 지역 고유의 전통과 채취가 살아 숨쉬는 마을을 정부 차원에서 지정, 육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보존 전승과 애향정신을 고취하고,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을 진작시키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방촌마을이 시범문화마을로 지정된 근거로는 첫째, 호남실학의 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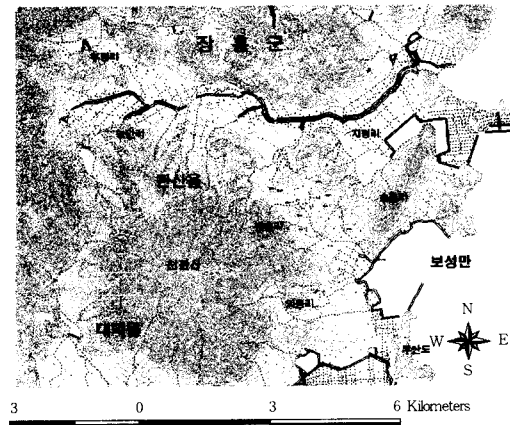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지역의 위치와 주변 지형

인 위백규(委白奎)의 생가 마을이라는 점, 둘째, 중요민속자료와 지방민속자료로 지정된 민속가옥이 많이 산재하여 전승 및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마을에서 300년 이상 지속되어온 마을 자치조직과 공동체 신앙이 전승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장흥군 방촌마을 편찬위원회, 1997). 따라서 연구지역은 전통마을의 공동체 신앙을 주제로 하는 연구의 사례지역으로서 적합한 지역이다.

2. 전통 마을과 공동체 신앙

1) 전통 마을에서 공동체 신앙이 갖는 의미

‘집’이 가족의 생활 공동체라면, ‘취락’은 가족을 포함한 친족이나 이웃 사람들과 지연(地緣)을 함께 하는 넓은 의미의 생활 공동체이다. 즉, 취락은 친족, 친구, 가족 등의 구별을 초월하여 같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공동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로서, 개별적인 의식보다는 집단의식이 중요시되고, 개인의 가치보다는 집단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삶의 협력체라고 할 수 있다(홍경희, 1987). 여기서 ‘마을’이라는 개념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심리적인 공간감이 더 크게 표출되는 생활공간으로서, 현대적인 개념의 행정구역으로 정의되는 취락과는 공간적인 관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마을은 ‘우리’ 또는 ‘동네’라는 정(情)적인 개념이 더 진하게 배어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랜 전통사회 속에서 마을에 뿌리내리고 전승되어 온 공동체 신앙은 마을이라는 공간을 점유하고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문헌이나 기록으로 표현되지 못한 마을 구성원의 전통적인 공간인식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 또한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신앙은 지리·역사적 환경 및 사회·경제적인 구조에 따라 그 목적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그 형태 역시 다양하게 나타

나기 때문에²⁾, 특정 지역의 공동체 신앙은 그 지역의 지역성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인주, 1996). 결국 전통 마을에 나타나는 공동체 신앙은 마을 구성원의 행태(behaviour)와 상징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과거 전통사회의 공간 인식과 구조, 나아가 지역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 마을 공동체 신앙의 분류와 의미

민간신앙의 한 형태로서 분류되고 있는 공동체 신앙은 개인신앙과 대별되는 집단신앙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신앙은 가택신앙, 고시례와 같이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신앙체계를 의미하는 반면, 집단신앙은 입석, 마을제(당산제 또는 별신제)와 같이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신앙체계를 의미한다(표 1)³⁾.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민간신앙 중에서 공동체 신앙, 그 중에서도 마을의 공간적 상징물(symbol)인 입석과 행위 자체인 별신제라고 할 수 있다⁴⁾.

(1) 입석

입석(立石, menhi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의 대상물, 또는 특수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연석이나 그 일부를 가공한 큰 돌을 세운 돌기둥을 말하는 것으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선돌(서 있는 돌), 입암(立岩), 장수지팡이, 돌장승, 수구막이, 수살, 탐 등의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입석은 거석문화의 한 형태인 거석 숭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 등지에서도 보이는 보편적인 현상이며⁵⁾, 형태론적으로는 남방의 거석문화 계열에 속한다(표인주, 1996). 지금까지 입석에 대한 연구는 그 형태와 기능에 관심을 보인 고고학적인 측면과 입석과 관련된 의례에 관심을 보인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졌다⁶⁾. 입석의 형태 분류는 첫째, 자연석을 수직으로 땅에 세워 놓은 입석과 적석(積石) 위에 세워 놓은 입석으로 분류하는 방법, 둘째, 적석 위

표 1. 민간신앙에서 공동체 신앙이 갖는 의미

대 분류	소분류	행위주체	종 류
민간신앙	개인신앙	개인 또는 가족	가택신앙, 고시례
	공동체 신앙	마을 또는 취락	입석, 마을제(당산제 또는 별신제)

에 세운 입석을 조탑의 한 형태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입석의 모양은 일반적으로 둥근 뿔 모양이 주를 이루지만, 이 외에도 둥근 기둥 모양, 모난 뿔 모양, 모난 기둥 모양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 규모는 일정하지 않지만, 주로 인공에 의해 세워진 높이 1~2m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간혹 높이 6~7m 규모의 기둥 모양의 큰 돌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입석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풍수설에 근거한 비보적 기능이다. 인간이 부정적인 자연의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삶의 터전을 바꾸어 나가기 위하여 행한 비보는, 지역의 허한 곳을 보완하여 땅의 기운을 회복하고 왕성하게 만들어 지덕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최원석, 2002). 이와 관련하여 보았을 때에 입석이 갖는 비보적 기능은 크게 수구막이, 수살막이, 배 형국, 성기 형국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⁷⁾. 둘째는 종교적 기능으로, 입석의 풍수적 기능이 종교적 기능으로 확대되어진 것을 말한다. 이는 마을의 제(당산제 또는 별신제)를 모실 때 함께 신으로 생각하여 제를 모시거나 혹은 입석 자체를 신으로 상징하여 모시는 경우가 해당된다⁸⁾.

(2) 별신제

별신제는 마을제의 한 형태로 마을 공동으로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마을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마을제의 한 유형이다. 이러한 마을제는 크게 당산제와 별신제로 구별되는데, 당산제는 마을의 신으로 모시는 당산나무에 제를 지내는 반면, 별신제는 당산나무 이외의 별도의 신에게 제를 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⁹⁾. 별신제의 외부적인 특징은 크게 두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허제비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축문(祝文)에 나타나는 문구이다. 일반적으로 별신제를 지낼 때에는 구체적인 신격을 대신해 어떤 형상을 만들는데, 신격을 나타내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허제비이다¹⁰⁾.

별신제는 특별히 2년 또는 5년, 10년 단위로 행하기도 하고, 마을에 따라서는 연중행사로 행하기도 한다. 특별히 크게 준비하는 별신제는 그 기간도 길어서 보름 정도까지 행하기도 하지만, 작은 마을의 별신제는 하루 정도로 끝난다. 그러나 기간

에 상관없이 준비기간은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 제 하루 전날에는 제물을 장만하는 화주집에 금줄과 황토흙을 간다. 금줄은 원세끼를 고와 만드는데, 이는 우리 민족 관념에 자리하는 왼손, 틀림, 신 등의 관념에 의한 것이다. 황토 또한 붉은 색을 띠는 벽사(辟邪)의 의미를 갖는데, 동짓날 붉은 팔으로 동지죽을 만들어 벽에 뿌리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별신제를 모실 때에는 보통 따로 신을 모실 자리를 만들게 되는데, 이는 신이 좌정하는 자리에 의미한다. 이렇게 별신제를 지내게 되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마을의 공동 축제가 된다. 제를 지낼 때에는 궁물(풍물)을 치기 시작하는데, 마을의 우물과 입석에 먼저 가서 치게 된다. 이는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서 제를 시작함을 알리는 것이다. 제를 지내는 순서는 유교적 제사절차와 같다. 제가 끝난 후에는 음복, 마당 밟기 등을 행한다. 별신제를 지낼 때 만든 특별한 신체(예를 들면 허제비)는 제가 끝나는 시점에서 버리게 된다.

3. 방촌마을의 형성과정과 공동체 신앙의 공간적 분포

1) 방촌마을의 형성과정¹¹⁾

방촌마을은 크게 7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그림 2), 각각의 마을들의 형성과정은 시·공간적으로 차별성을 가지고 나타났다.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방촌마을은 주산을 서남쪽의 천관산으로 하고 안산으로는 상잠산을 두었으며, 전체적인 형국은 배 형국을 띠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방촌마을은 장흥위씨의 집성촌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초기에는 주산을 바라보는 안산 기슭에 마을이 조성되었고, 이후 차츰 분가 과정을 통해 서쪽의 천관산 아래로 이동하게 되었다¹²⁾.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오늘날의 1:25,000 지형도에 나타난 마을의 위치 및 명칭과 마을 자체에서 칭하는 위치 및 명칭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방촌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7개 마을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전통 사회의 공간구조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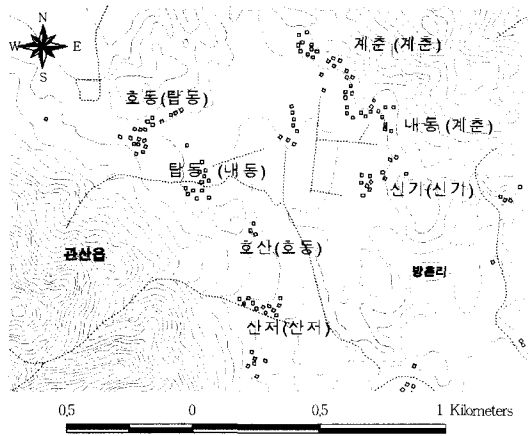


그림 2. 방촌마을의 공간적 분포

(괄호 안의 이름은 1:25,000 지형도상의 이름으로 전통 사회의 이름과 오늘날의 이름이 다를 수 있다)

내동마을은 방촌의 안산인 상잠산 서쪽 45~60m 내외의 구릉지 사이에 1600년대 초반부터 형성된 마을로 방촌의 7개 자연마을 중 제일 역사가 오래된 마을이다. 따라서 마을 동쪽인 이곳부터 장흥 위씨의 마을 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계속하여 계춘, 신기, 호동마을 등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이 마을의 주거지 형성과정은 1600년대 초반 위씨 일가들이 최초로 정착한 이후 마을 영역의 확산과 함께 지금의 모습으로 정착되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과거 고려 말 장흥부의 읍치소가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현재도 그 터를 기리는 기념비가 위성렬(委成烈) 가옥 자리에 남아있다¹³⁾. 따라서 내동마을이 방촌마을의 시작점이자 공간적으로 핵심의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계춘마을은 내동마을과 연결되어 상잠산 약간 깊숙한 곳에 터를 마련한 마을이다. 이 마을의 주거지 형성과정은 1600년대 말에 현재의 위계환(委桂煥) 가옥의 자리에 위씨 일가가 정착된 후 1700년대~190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이 마을은 사회적으로 위계가 높은 가옥이 경사지 마을에서 위쪽에 입지하는 조선시대 동쪽마을의 일반적인 원형이 잘 지켜진 곳이다. 특히 현재 남아있는 위계환(委桂煥)의 가옥터는 방촌마을 동쪽의 내동, 계춘, 신기마을 전체에서 가장 돋보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장흥군 방촌마을 편찬위원회, 1997).

신기마을은 내동 및 계춘마을과 달리 집촌이 아

닌 산촌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마을의 주거지는 마을 이름이 지시하고 있듯이, '새터'로서 1800년대 말에 조성된 곳도 있고 1900년대 초에 조성된 곳도 있다. 그러나 1700년대 초에 형성된 가옥 터가 있는 것으로 보아 1800년대 이전에 소규모로 입지를 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 마을의 형성과정은 현재의 위봉환(委奉煥) 가옥의 자리에 위씨 일가가 소규모로 정착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호동마을은 천관산의 지맥이 북쪽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약간 솟아오른 해발고도 80.5m의 구릉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마을 전면으로는 천관산 등산로와 이어지는 길이 나 있으며 전면에는 넓은 농경지가 나타난다. 이 마을은 안 길을 중심으로 가옥들이 위쪽과 아래쪽으로 분산되어 나타나는데, 아래쪽의 마을이 위씨 일가가 먼저 이주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마을의 입향조(入鄕祖)가 최초로 자리를 잡은 곳은 현재의 위성탁(委成卓) 가옥의 자리이다.

탑동마을은 천관산의 완사면 아래의 평지에 입지한 마을로, 탑동과 호산마을 사이에 위치하여 있다. 마을 앞으로는 멀리 신기마을이 보이고 신기마을과의 사이에는 넓은 농경지가 분포한다. 한편 이 마을은 위씨가 입향하기 이전부터 다른 성씨들에 의하여 이미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다른 성에 의해 형성된 부분은 마을의 북쪽으로 위씨의 마을은 남쪽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마을의 위씨의 최초 입향은 1700년대 중엽 존재공의 둘째 아들이 이 곳으로 분가하면서 이루어졌다.

호산마을은 천관산 성주계곡 아래의 고도 70m 내외의 구릉지 사면에 형성된 마을로 7개의 마을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작은 마을이다. 마을 바로 앞으로는 837번 지방도로서 70년대 이후 건설되었다. 이 마을은 위백규(委白奎)의 둘째 아우인 위백신(委白信)이 분가하여 처음으로 형성된 약 250년의 역사를 가진 마을로, 구릉지 사면에서 현재의 지방도로로 마을의 확장이 이루어진 곳이다.

산저마을은 천관산 서쪽의 성주골이 멈추는 고도 40~50m 내외의 산 사면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한 곳에 형성되어 있지 않고 두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하천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두 마을 사이에는 하천을 끼고 넓은 논이 펼쳐져 있으며, 남쪽의 마을은 고

려시대에 입지한 타성(他姓)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북쪽의 마을은 이후 입지한 위씨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마을이다.

이와 같이 연구지역인 장흥 방촌마을은 시기와 형성과정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장흥 위씨의 정착과 분가, 재분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동족촌으로서, 전형적인 마을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공동체 신앙의 위치 및 공간적 분포

위에서 살펴본 방촌마을의 공동체 신앙은 크게 입석과 별신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촌마을 공동체 신앙의 특징을 공간적으로 해석하

기 위해서 1개의 돌장승과 6개의 입석, 그리고 별신제의 제터와 허제비골로 대표되는 방촌마을 공동체 신앙의 위치와 분포를 파악하였다(표 2, 그림 3)¹⁴⁾.

(1) 입석과 돌장승

흔히 입석의 발전된 형태로 분류되는 돌장승은 방촌마을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837번 지방도로의 양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 돌장승은 크게 진서대장군과 미륵석불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진서대장군의 규모는 높이 235cm, 두께 40cm, 미륵석불의 경우 높이 197cm, 두께 48cm이다. 그리고 돌장승의 북쪽 전면으로는 하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돌장승의 위치는 행정구역상으로는 방촌리와

표 2. 방촌마을 공동체 신앙의 위치분석을 위한 좌표

공동체 신앙	경위도 좌표		TM 좌표	
	위도	경도	X 좌표	Y 좌표
돌장승	34, 33, 03.2	126, 56, 42.0	194733,820	117177,530
입석 1	34, 32, 47.2	126, 56, 39.4	194569,360	116684,170
입석 2	34, 32, 44.2	126, 56, 34.9	194633,370	116321,200
입석 3	34, 32, 44.2	126, 56, 41.7	194829,070	116315,340
입석 4	34, 32, 38.6	126, 56, 43.1	194891,530	116142,160
입석 5	34, 32, 38.1	126, 56, 45.1	194831,710	115920,630
입석 6	34, 32, 51.6	126, 56, 51.3	195133,210	116805,550
별신제터	34, 32, 42.8	126, 56, 51.6	194892,110	116770,420
허제비골	34, 32, 18.2	126, 56, 58.5	195289,830	115748,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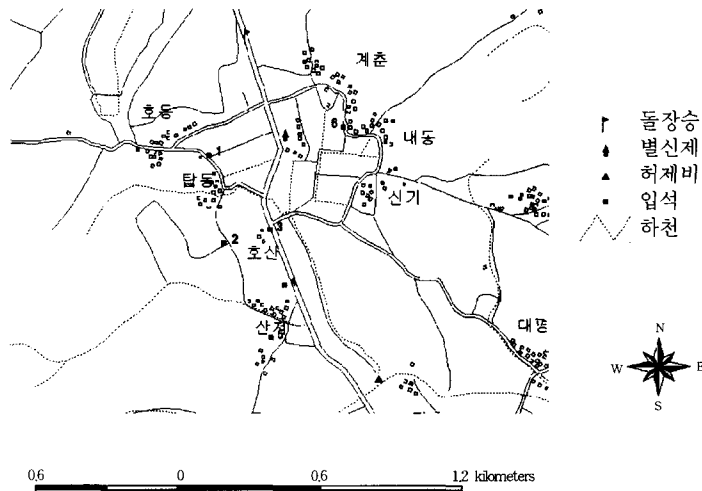


그림 3. 방촌마을내 공동체 신앙의 위치

죽교리의 경계지점이다.

입석 1은 탑동과 호동 마을을 연결하여 형성된 마을도로와 탑동마을 전면의 논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소도로의 결절점에 위치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호동마을의 가옥 가운데 문화재로 지정된 위성탁(委性卓) 가옥과 인접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규모는 높이 187cm, 두께 41cm이다. 입석 2는 논을 관통하여 탑동과 호산마을을 연결하는 마을도로와 탑동과 호산마을 중간의 마을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규모는 높이 178cm, 두께 51cm이다. 입석 3은 호산마을 우측의 837번 지방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규모는 높이 234cm, 두께 79cm로 6개의 입석 가운데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입석 4는 호산마을과 산저마을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과수원 사이 제방도로 위에 위치하고 있다. 규모는 높이 192cm, 두께 59cm이다. 입석 5는 산저마을을 양분하는 하천변 제방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높이 144cm, 두께 43cm이다. 입석 6은 내동마을과 계촌 마을의 연결하여 형성된 마을도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나머지 5개의 입석에 비교할 때 그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는데, 높이 30cm, 두께 10cm에 불과하다. 마을 주민의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방촌마을에 현재 위치해 있는 입석 가운데에서 입석 6이 가장 오래된 입석이며, 그 연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현재는 생존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57세, 농업).

(2) 별신제터와 허제비굴

방촌마을의 마을제는 당산나무에 제를 지내지 않고 별도의 신을 상징하는 허제비를 만들어 지낸다는 점에서 별신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촌마을의 별신제와 관련된 공간적 해석은 크게 별신제를 지내는 장소, 즉 별신제터와 제가 끝난 후 허제비를 버리는 허제비굴로 나누어 수행할 수 있다. 방촌마을에서 정월 대보름에 지내는 별신제터는 현재의 마을회관이 있는 곳으로, 지형적으로는 계촌마을과 내동마을 전면부의 완사면 구릉지이며 입석 6과 인접한 곳이다. 837번 지방도로를 경계로 보았을 때에는 도로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방촌마을 내에서도 동쪽마을과 서쪽마을 사이에는 나뉠대로의 계급 구분이 있었음을 지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별신제 후 허제비를 버리는 허제비굴은 837번 지방도로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점은 방촌마을을 남북으로 관통하여 흐르는 1차수 하천과 천관산 연태봉(煙台峰, 723.1m)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1차수 하천의 합류 지점이다. 이 지점에서 합류된 물은 2차수 하천을 이루면서 남동쪽의 평촌마을과 대평마을 사이를 관통하여 바다로 유입되어 갯골을 형성한다.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허제비가 흘러나가는 최종지점에는 낭끝애라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이 마을은 송촌 방조제 건설 이후 활성화된 마을로 전통사회에서는 어패류를 방촌마을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4. 방촌마을 공동체 신앙의 공간적 해석

1) 입석과 돌장승의 공간적 의미

앞서 살펴 본 입석과 돌장승의 위치 및 분포를 방촌마을의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방촌마을에 분포하는 6개 입석의 공간적 특성은 마을과 마을 사이의 도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방촌마을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837번 지방도로보다는 1920년대 이전부터 있었던 마을길과 더 밀접한 공간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이러한 사실은 방촌마을의 입석이 적어도 1900년대 이전에 세워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인위적 경관변화 이전의 방촌마을의 공간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방촌마을에 분포하는 입석의 첫 번째 공간적 의미는 마을 사이의 영역 또는 나뉠대로의 경계지점을 표시하는 전통사회 주민들의 공간인식의 표현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계표시는 당시의 사회·경제적인 구조로 보았을 때에는 다분히 심리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표시된 것으로, 실제적인 생활구역의 경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된다. 그 근거로는 방촌마을의 경제적 토대가 되었던 농경지는 7개 마을의 중간 지점에 형성되어 있고, 이를 공유하면서 농경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가 있다(현지주민 인터뷰, 농업, 65세).

개개 입석의 공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입석 1은 호동마을과 탑동마을 사이의 마을 도로 위에 있는 점으로 미루어 두 마을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고, 입석 2는 탑동마을과 호산마을 사이의 마을 도로 위에 위치한 점으로 미루어 두 마을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입석 3은 현재의 837번 지방도로 위에 위치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가장 규모가 작은 호산마을의 외곽경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입석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는 837번 지방도로가 건설되기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입석이 위치한 지점이 당시 방촌 사람들 사이에서 방촌마을의 동쪽과 서쪽을 구획하는 심리적인 경계지점이었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입석 3은 다른 입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데, 이는 가장 규모가 작은 마을이라는 특징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호산마을이다”라는 표식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입석 4는 호산마을과 산저마을 사이의 마을도로 위에 있는 점으로 미루어 두 마을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입석 5는 나머지 5개의 입석과는 달리 산저마을의 중앙부 마을도로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3장에서 살펴본 방촌마을의 형성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산저마을은 가운데에 비교적 넓은 하천과 논을 끼고 장흥 위씨 사람들과 타성 사람들의 마을로

대별되기 때문에, 산저마을의 입석은 이러한 성씨 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입석 6은 계춘마을과 내동마을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며, 동시에 전통사회 방촌마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입석의 발전된 형태로 평가되는 돌장승은 현재의 죽계리와 방촌리의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방촌마을의 입구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나라의 전통마을의 경우 마을 경계 부분에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장승을 세워둔다는 민속학적인 견해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촌마을에 분포하는 입석의 두 번째 공간적 의미는 전통사회에서의 마을의 중심공간(core), 또는 세력권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3장의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에서도 살펴본바와 같이, 방촌마을의 형성과정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마을은 내동마을과 계춘마을이다. 이런 관점에서 내동마을과 계춘마을 사이에 위치해 있는 입석 6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입석 6이 나머지 입석과는 달리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내동마을이 입지한 초창기 시절에는 다른 마을들의 발달이 없거나 미약하였고, 따라서 마을의 경계를 구획하는 의미가 크게 부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내동마을 앞의 입석 6은 계춘마을과의 경계라는 의미보다는 방촌마을 전체의 중심이라는 상징적인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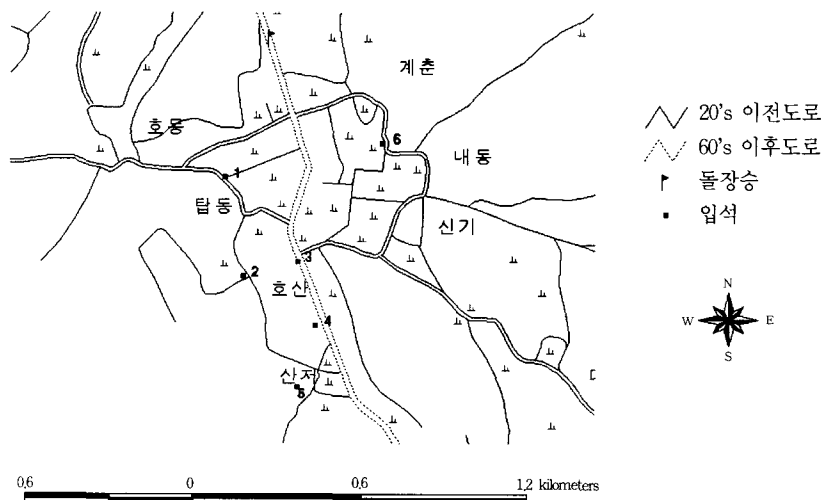


그림 4. 방촌마을의 입석 및 돌장승과 도로의 관계

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실례로, 별신제를 지낼 때 궁물을 치는 입석이 바로 내동마을의 입석 6이라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고 하겠다.

2) 별신제터와 허제비골의 공간적 의미

방촌마을에서 행해지는 마을제와 관련된 별신제터와 허제비골의 공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별신제터는 7개 마을의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해석해 볼 때, 방촌마을의 중심지라는 공간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의 중심지 개념은 현대적 이론의 중심지라기보다는 전통사회 사람들의 심리적 차원의 중심지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신제는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고 이를 통하여 마을 사람들을 통합하며, 마을의 위계질서를 바로 잡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별신제를 지내는 터는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神)이 좌정하는 자리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마을의 별신제터는 마을의 핵심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마을의 실질적인 권력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방촌마을의 경우 내동마을이 실질적인 핵심공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내동마을이 가장 역사가 오래된 마을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고려 말의 동헌터가 있던 자리가 내동마을이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방촌마을의 우물터에서도 알 수 있다.

일찍이 방촌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을의 형국을 배 형국이라고 믿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마을에 우물을 파는 것을 상당히 꺼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전통사회의 우물터는 방촌마을의 핵심공간이자 신성화된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우물터가 바로 내동의 중심지라는 사실도 내동마을의 공간적 의미를 지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5).

둘째, 허제비골의 공간적 의미는 마을의 끝 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6). 일반적으로 별신제의 제일 마지막 순서는 허제비를 버리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허제비를 버리는 사람은 버린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온다. 공동체 신앙에서 허제비를 버리는 이유는 마을의 1년 동안에 있을 나쁜 액을 대신 가져가기를 기원하기 때문이다(이주승, 1997). 따라서 마을의 경계 밖에 허제비를 버린다는 의미는 허제비라는 신이 마을의 나쁜 액을 모두 가져가 물리쳐 달라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하천의 합류지점인 방촌마을의 허제비골이 바로 방촌마을의 외곽 경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형도상에서 보게 되면, 이 허제비골의 하천은 평촌마을과 대평마을을 관통하여 바다로 빠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볼 때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오늘날의 대평마을이나 평촌마을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현지 조사 결과, 현재의 대평마을과 평촌마을에는 위씨가 거주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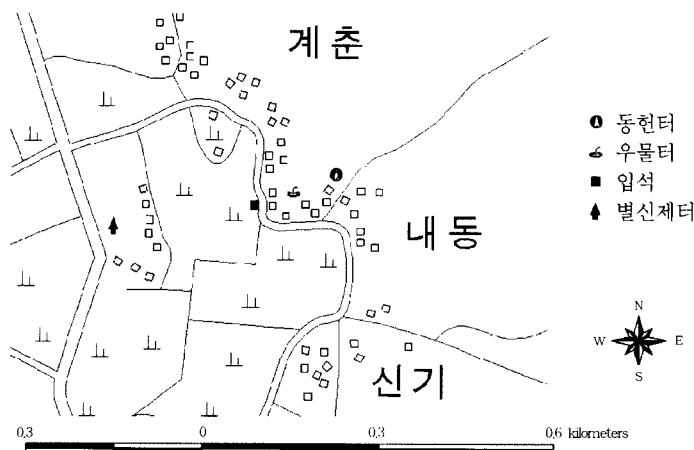


그림 5. 방촌마을 중심지인 내동마을의 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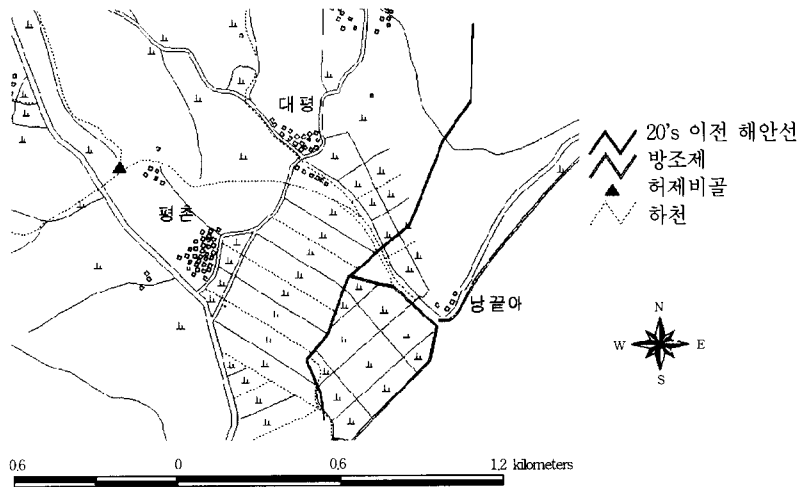


그림 6. 방촌마을의 외곽 경계로서의 허제비골

표 3. 방촌마을 공동체 신앙의 공간적 의미

공동체 신앙	공간적 의미	공동체 신앙	공간적 의미
돌장승	방촌마을의 입구 경계 표시	입석 5	산저마을내 성씨가 다른 소마을의 경계 표시
입석 1	호동과 탐동마을의 경계 표시	입석 6	내동과 계춘마을의 경계 표시, 방촌마을의 중심공간 표시
입석 2	탐동과 호산마을의 경계 표시	별신제터	방촌마을의 중심공간 표시
입석 3	호산마을의 존재 표시	허제비골	방촌마을의 외곽 경계 표시
입석 4	호산과 산저마을의 경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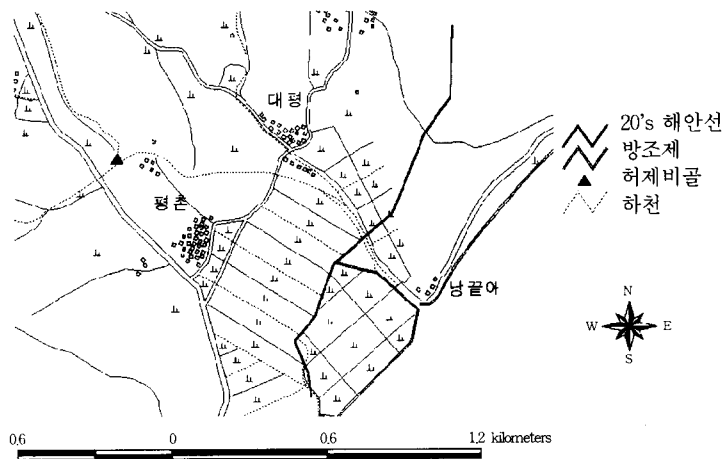


그림 7. 공동체 신앙을 통해 본 방촌마을의 공간구조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까지도 위씨 사람들과 두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어업, 69세).

결론적으로 방촌마을 공동체 신앙은 크게 마을과 마을의 경계 표시(입석 1·2·4·5·6), 마을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는 기능(입석 3), 마을의 중심

지 표시(입석 6, 별신제터), 마을의 입구와 외곽 경계 표시(돌장승과 허제비굴)라는 공간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3). 따라서 전통마을에 나타나는 공동체 신앙은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신앙과 상징이라는 의미 이외에, 과거 전통사회 자연마을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게 해주는 지시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그림 7).

6. 결론

인간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와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독특한 신앙체계는 인간이 특정 지역을 점유하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발현된 하나의 공간적 행태라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신앙의 하나인 공동체 신앙은 마을이라는 공간을 점유하고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전통 사회 마을 구성원의 공간인식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통마을에 나타나는 공동체 신앙의 특성을 공간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지역으로는 전통문화마을로 지정된 전라남도 장흥군 방촌마을을 사례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지역인 방촌마을은 내동, 계춘, 탑동, 호동, 호산, 산저, 신기의 7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마을의 형성과정은 고려시대 이후 시공간적으로 차별성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 이 중 가장 오래된 마을은 내동마을로 고려 말까지 장흥부 동헌터가 있었던 실질적인 방촌마을의 중심공간이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입지시기가 가장 최근인 마을은 신기마을이다.

둘째, 문헌 및 현지주민 인터뷰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방촌마을의 공동체 신앙은 크게 입석과 마을 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6개의 입석과 1개의 돌장승, 그리고 별신제를 모시는 별신제터와 별신제 후 허제비를 버리는 허제비굴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공동체 신앙의 공간적 위치 및 분포를 통해 공동체 신앙의 공간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다. 입석과 돌장승은 마을과 마을의 경계 표시, 마을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는 기능, 마을의 입구 표시라는 공간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별신제와 관련된 별신제터와 허제비굴의 경우, 별신제터는 전통사회 방촌마을의 중심공간의 표시, 허제비굴은 마을의 끝 경계 표시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허제비굴의 외곽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평촌, 대평)은 전통사회에 있어서 방촌마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해안지역의 인위적 경관변화에도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통마을에 나타나는 공동체 신앙은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신앙과 상징이라는 의미 이외에, 과거 전통사회 자연마을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게 해주는 지시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註

- 1) 공동체 신앙에 대한 민속학, 인류학적인 연구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할 것.
표인주, 1996, 공동체 신앙과 당신화 연구, 집문당.
나경수, 1994, 전남의 민속연구, 민속원.
전북대학교 박물관, 1998, 전북 해안지역 마을 공동체 신앙 - 고창·부안을 중심으로, 신아출판사.
최길성, 1989, 한국 민간신앙의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2)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을제의 경우 같은 호남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내륙 지역에서는 당산제, 해안지역에서는 당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격(神格) 역시 내륙지역에서는 당산할아버지와 당산할머니, 해안지역에서는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가 보편적인 명칭이다. 또한 내륙지역의 경우에 해안지역에 비해서 유교식의 제의 내용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되는 경우가 많으면서, 동시에 농경사회의 신앙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행위가 복합적으로 병행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예가 된다. 또한 입석의 경우에도, 어떤 마을에서는 장승의 형태를 띤 입석이 주를 이루는 반면, 어떤 지역에서는 고인돌 형태의 가공되지 않은 돌 자체가 주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 3) 물론 이와 같은 분류는 지역과 행위주체에 따라 약간의 정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입석을 대상으로 일개 개인이 민간신앙을 행한다면 그 경우의 입석은 개인신앙이 된다.
- 4) 후술하겠지만, 입석은 하나의 공간적 상징물로서 마을 주민들의 민간신앙 행위 자체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공동체 신앙으로 분리하는 것이 민속학에서는 일반적인 견해이다.
나경수, 1993, 한국의 신화연구, 교문사.
- 5) 특히 서부 유럽에서는 수천 개에 달하는 선돌이 열을 지어 하나의 열석군(列石群)을 이루고 있는 곳도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로크마리아케르(Locmariaquer) 지방이다. 선돌을 의미하는 멘히르(menhir, longstone)는 바로 이 지방의 고유어인 브렌트어에서 유래하였다.

- 6)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입석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는 전남지방으로 대상으로 한 김학휘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학휘, 1985, "전남지방 입석조사", 전남개발연구, 광주 전남발전연구원.
- 김학휘, 1990, "광주 전남지방의 입석신앙," 전남문화, 제 2호.
- 7) 수구막이는 물이 길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세우는 것을 말하고, 수살막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殺)를 막기 위해 세우는 것이다. 배 형국은 마을의 형국이 배 모양으로 생겼을 경우, 배를 지탱하기 위한 사공이나 돛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우는 것이며, 성기형국은 마을의 음양의 조화가 깨지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세우는 것이다.
- 8) 본 연구에서 입석의 공간적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입석의 풍수적·종교적 기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능 이외의 공간적인 의미를 분석한다는 의미이다.
- 9) 앞서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단신앙의 대표적인 예로는 입석과 마을제가 있으며, 마을제는 다시 그 절차와 형식에 따라 당산제와 별신제로 구분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절차가 그다지 다르지 않고, 연구지역인 방촌마을에서 모시는 마을제는 당산제보다는 별신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별신제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하기로 한다.
- 10) 짚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을 말하는 것으로 허제비 이외에 재웅, 허수아비, 허깨비 등으로 불리는데, 그 기원은 신라 시대까지 소급된다. 짚으로 사람 형상을 만드는 목적은 크게 일상생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과 주술적 목적의 두 가지로 나뉜다. 일상생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의 대표적인 예는 새를 쫓기 위해 허수아비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고, 주술적 목적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1년 액을 막기 위해 정초에 제웅(祭翁)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 11) 이 부분은 장흥군 방촌마을지 편찬위원회가 간행한 「전통문화마을 장흥 방촌」을 참고하고, 현지 주민의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 12)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방촌마을의 경우 안산인 상잡산 자체가 새끼 호랑이를 품고 있는 북호형으로서 길지의 형국이 되고, 또한 좌청룡에 해당하는 북쪽 구릉이 안산과 이어져 마을을 포근히 감싸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78세, 농업).
- 13) 장흥부의 동헌터는 조선조 태조 때 현재의 장흥읍으로 이전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고려 말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통하여 고려조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후, 장흥 위씨 일가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그 후 무학대사가 전국의 신을 돌아다니면서, 역성혁명의 지지를 호소하였는 바 장흥의 천관산은 이에 끝까지 반발하였다고 한다. 이에 조선조에서는 장흥부의 동헌터를 현재의 장흥읍으로 이전하였고, 장흥의 천관산을 고흥으로 유배 보냈다고 한다(72세, 농업).
- 14) 공동체 신앙의 좌표분석은 GPS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정확한 경위도 좌표를 구한 후, 이를 평면지도의 좌표체계인 TM 좌표로 변환하여 수치지도에 표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文 獻

- 冠山邑誌, 1789.
 梧軒全稿, 1873.
 건설교통부, 1963, 1 : 50,000 지형도 강진 도엽
 국립지리원, 1989, 1 : 25,000 지형도 관산 도엽
 김원룡, 1960, "멘헬(입석) 잡기," 고고미술, (5), 23-24.
 김학휘, 1985, "전남지방 소재 입석조사," 전남개발연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김학휘, 1990, "광주 전남지방의 입석신앙," 전남문화, (2).
 나경수, 1994, 전남의 민속연구, 민속원.
 남도민속학회, 1998, 화순군의 민속과 축제, 화순군.
 민속학회, 1994, 한국 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박의준 · 이정록, 2001, "수치지도와 DEM 데이터를 이용한 호남지역 전통취락의 입지적 특성 분석," 지리학연구, 35(3), 219-230.
 이용조, 1980, 한국 선사문화연구, 평민사.
 이주승, 1997, 마을 곳에 나타난 허제비의 뜻과 구실,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흥군청, 1999, 장흥군지.
 장흥군 방촌마을 편찬위원회, 1997, 전통문화마을 장흥방촌, 장흥군.
 전북대학교 박물관, 1998, 전북 해안지역 마을 공동체 신앙 - 고창 · 부안을 중심으로, 신아출판사.
 최길성, 1989, 한국 민간신앙의 이해, 계명대학교 출판부.
 최원석, 2002, "영남지방 비보의 기원과 확산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4), 48-54.
 표인주, 1996, 공동체 신앙과 당신화 연구, 집문당.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 웅진출판사.
 한규량, 1984, "한국 선들의 기능변천에 관한 연구," 백산학보, (28), 276-343.
 홍경희, 1987, 촌락지리학, 법문사.

원 고 접 수 일 2002. 4. 11

최종원고접수일 2002. 6. 4